

한국, 상품 수출 세계 11위로 상승

WTO, 2006년 3260억달러로 1단계 올라 ... 수입은 2847억달러로 13위

우리나라의 2006년 상품 수출액(달러화 기준 명목 베이스)이 2005년에 비해 15% 늘어난 3260억달러를 기록해 세계 11위 상품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2005년 상품 수출액 2847억달러로 12위를 차지한 데서 한 계단 상승한 것이다.

2006년 상품 수입액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3009억달러로 2005년에 이어 또 다시 13위를 차지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4월12일 발표한 <2006년 국제무역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들의 자체 교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2006년 상품수출에서 6위, 상품수입에서 7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서비스 수출에서는 510억달러로 16위, 서비스 수입은 690억달러로 13위에 불과했다.

2006년 세계 상품 수출총액은 15% 늘어난 12조620억달러, 상품 수입총액은 14% 증가한 12조380억달러로 집계됐고, 서비스 수출총액은 11% 증가한 2조7100억달러, 서비스 수입총액은 10% 늘어난 2조6200억달러를 기록했다.

실질 베이스로는 2006년 세계 상품 수출총액이 8% 증가해 2000년 이후 2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WTO는 보고서에서 2007년 전망과 관련,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약 3%에 이르고 실질 베이스 기준으로 세계 상품 수출총액이 2006년에 비해 다소 둔화돼 약 6%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상품 수출액 순위는 독일이 1조1120억달러로 1위, 미국이 1조370억달러로 2위를 차지했고, 3위는 중국으로 9690억달러, 4위 일본은 6470억달러를 기록했다.

상위 10개국은 2005년과 순위 변동이 없었는데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이태리, 캐나다, 벨기에 순이었으며, 10개국이 상품 수입액 기준으로도 상위 10개국에 속했다.

미국은 상품 수출액이 14% 늘어나 10여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무역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가격 변동치를 환산하면 미국의 상품 수출액은 세계무역 및 미국의 상품 수입액 증가율에 비해 더욱 급속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상품 수출액은 무려 27% 증가했으며, 저개발국들의 상품 수출액도 원유와 원자재 등의 가격상승에 힘입어 가파르게 증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4/13>